

## 친절한 협조에 깊은 사의

### 「레이건」 대통령에게 보내는 기상 메시지

1981년 2월 6일

대통령 각하!

본인은 「호놀룰루」에서의 즐거운 방문을 끝으로 이제 서울로 향발하고 있습니다.

떠나면서 본인은 다시 한 번 본인의 금번 방미를 유익하고 기억에 오래 남게 하도록 배해주신 대통령 각하의 친절과 협조에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.

우리 양국정부의 새로운 출범에 즈음한 본인의 방문이 각하와 친히 알게 된 계기가 되고 그것이 양국의 전통적 우의와 협력관계를 가일층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된 것을 같이 경하하는 바입니다.

본인은 멀지않은 장래에 우리 나라에서 각하의 따뜻한 후의를 보답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.

본인 내외는 귀하와 영부인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성공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.

